

연중 제28주일 복음 나누기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마르 10,27)

1. 성호경
 2. 시작성가(생활성가를 추천합니다)
 3. 자기소개와 한 달의 삶 돌아보기(각자 어떻게 지냈는지 발표합니다)
 4. 준비기도<각자 자유롭게>
 5. 독서 (성경읽기 I) - 마르 10,17-30
-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 17 (그때에)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 18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 19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
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횡령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
를 공경하여라.’”
- 20 그가 예수님께 “스승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 왔습니다.” 하고 대답
하였다.
- 21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르셨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
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 22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
고 있었기 때문이다.
- 23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
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참으로 어렵다!”
- 24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에 놀랐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거둬 말씀하셨다. “얘
들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참으로 어렵다!
- 25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 26 그러자 제자들이 더욱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
다.
- 27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그럴
지 않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 28 그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 29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 30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백 배나 받
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세밀한 독서 나눔

- 한 사람이 성경을 큰 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다 같이 큰소리로 읽어도 좋습니다)
- 모두 들은 후, 각자가 성경 말씀을 한 절, 한 절 세밀히 읽습니다.
- 처음부터 단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읽습니다. 의미 있는 단어, 반복되는 어휘나 문장을 주의 깊게 읽으며, 성경의 다른 곳에 그 말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지 기억하도록 합니다.(약 5분 정도)
- 한 사람씩 특별히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아주 천천히 세 번씩 반복하여 외칩니다.
- 단어나 구절을 선택하게 된 동기를 돌아가며 발표합니다.
- 세밀한 독서가 끝나면 성경 해설 부분을 서로 돌아가면서 천천히 읽습니다.

< 성경해설 >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17절) 어떤 사람이 신앙인이란 누구냐 궁금해 하는 것을 예수님께 직접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19절)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횡령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탈출 20,12-16; 신명 5,16-20)는 계명을 알고 있으며, 대부분 별 무리 없이 지켜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어떤 사람이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다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십니다.(20-21절) 계명을 지키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따뜻한 시선이 머물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될 것입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21절)

무릎을 꿇을(17절) 정도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으며, 적극적인 그였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슬퍼하면서 떠나갔습니다. 그의 거룩한 열망을 잠재운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었지만, 그는 가지고 있는 재물을 놓는 것이 두렵고 아깝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한 예수님의 말씀보다 지금 자신에게 힘이 되어주는 재물에 더 큰 믿음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풍요롭게 가지고 있어도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23절)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들게 하는 것은 재물 뿐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해당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가지기 위해 시간과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놓기 힘듭니다. 가진 것들에게 마음을 쏟게 되어, 어느새 우리들이 그것들에게 속박 당하게 되었는데도 모릅니다.

과연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냐며 놀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좌절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을 가지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느님께 우리의 희망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 묵상나누기

(말씀 나누기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특별히 체험 발표를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 ❖ 복음에서 어떤 사람은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나에게 있어서 재물은 어떤 것인지 나눠봅시다.

6. 되새김(성경읽기 II)

☞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며, 기도와 관심 그리고 실천을 위해서는 되새김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다른 누군가가 또다시 큰 소리로 읽습니다.

7. 마침기도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8. 안건토의

9. 기타토의(공지사항)

10. 마침성가(생활성가를 추천합니다)